

브룩스 끌고 박준표 밀고... 영글어 가는 '가을잔치 꿈'



브룩스



박준표



KIA, NC에 4-3 승리...주말 2연전 연승
브룩스, 호랑이군단 첫 10승 고지
박준표, 복귀전 완벽 피칭...데뷔 첫 세이브
상위팀들과 3승 1패...5위 KT와 1.5 게임차

KIA 타이거즈의 브룩스가 팀에서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올랐다.
 KIA가 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11차전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6.1이닝 6피안타 2볼넷 4탈삼진 2실점을 기록한 브룩스가 3-2로 앞선 상황에서 등판을 마무리한 뒤, KIA가 리드를 놓지 않으면서 브룩스의 10승이 기록됐다.
 돌아온 박준표는 마지막 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데뷔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브룩스가 앞선 등판과 달리 예리함이 떨어졌다. 1회 선두타자 박민우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브룩스는 도루로 1사 2루에 몰렸다. 나성범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브룩스의 실점이 올라갔다.
 브룩스는 2회에 2사에서 알테어에게 볼넷과 도루를 허용하며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냈다. 권희동의 승부 때 유격수 박찬호가 좋은 수비로 땅볼을 만들어주면서 실점 위기는 넘겼다.
 3회초 KIA가 상대의 실수로 동점을 만들었다. 1사에서 박찬호가 우전 안타로 출루했고, 최원준

의 타석에서 2루수 포구 실책이 나왔다. 이어 터커의 중전안타로 박찬호가 홈에 들어와 1-1이 됐다. 하지만 3회말 브룩스가 다시 실점했다.
 이번에도 박민우가 시작점이었다. 박민우의 중전안타에 이어 이명기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한 브룩스, 김성욱이 보내기 번트에 성공했다. 그리고 양의지의 땅볼로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4회초 KIA 타자들이 다시 움직였다. 유민상과 김태진의 연속 안타 뒤 한승택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3루. '루키' 홍중표가 좌익수 방향으로 공을 보내 희생 플레이를 만들었다. 박찬호의 볼넷 뒤에는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3-2로 흐름을 바꿨다.
 '4회말'이 결정적인 순간이 됐다. 1사에서 노진혁의 번트 안타와 알테어의 우전 안타가 이어졌다. 볼넷으로 1사 만루. 브룩스가 앞선 두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만든 박민우와의 승부에서 1루 땅볼을 유도하며 홈에 들어오던 노진혁을 잡

아냈다. 그리고 이명기의 2루수 땅볼로 실점 없이 4회 수비를 넘겼다.
 뒤늦게 몸이 풀린 브룩스는 5-6회는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7회 선두타자 권희동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브룩스의 역할이 끝났다.
 좌완 이준영이 등판했지만 1루수 유민상의 포구 실수와 폭투가 이어졌다. 도루와 볼넷까지 나오면서 1사 1-3루, 홍상삼이 김성욱과 양의지를 범타로 돌려세우면서 급한 불을 껐다.
 나지완의 2루타와 유민상의 적시타로 4-2로 점수를 벌인 8회말도 쉽지 않았다.
 팀의 4번째 투수로 나온 정해영이 연속 안타로 8회를 시작했다. 희생번트로 1사 2-3루, 몸에 맞는 볼로 베이스가 가득 찼다. 권희동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1점 차로 다시 좁혀졌다. 정해영은 박민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브룩스의 승리를 살렸다.
 이어 마지막 9회 박준표가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 8월 4일 오른손 약지 인대 부상으로 빠졌던

박준표가 이날 엔트리에 등록, 어깨 통증으로 자리를 비운 전상현을 대신해 마무리로 나섰다.
 이명기를 3루수 플라이로 처리한 박준표가 대타 김형준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양의지와외의 대결이 전개됐다.
 초구에 양의지의 방망이가 움직였다. 벼락같은 타구가 외야로 뻗어 나갔지만, 다행히 외야수를 살짝 벗어나면서 '파울홈런'이 됐다.
 그리고 2구 파울 뒤 박준표의 3구째 공이 바깥쪽으로 빠져 앉은 포수의 요구와 달리 가운데로 물렀다. 의도치 않은 반대투구에 양의지가 스탠딩 삼진으로 돌아섰다.
 이어 도태훈의 타구를 중견수 김호령이 잡아내면서 브룩스의 10승과 박준표의 데뷔 첫 세이브가 동시에 기록됐다.
 KIA는 LG, 두산, NC 등 난적을 상대한 6연전에서 3승 1패(두 경기 우천 취소)를 기록하며 '가을잔치' 꿈을 이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

김한별 '남자골프 큰 별'로 우뚝

KPGA 신한동해오픈 우승...코리안투어 2연속 우승

김한별이 데뷔 2년 만에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최고의 별로 우뚝 섰다.
 김한별은 13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 미국·오스트랄아시아 코스(파71)에서 열린 코리안투어 제36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4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지난달 30일 헤지스골프 KPGA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신고했던 김한별은 14일 만에 또 한 번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으며 이번 시즌 맨 먼저 2승 고지에 올랐다. 코리안투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은 2014년 박상현이 바이네르-파인리즈 오픈과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을 내리 제패한 이후 5년 10개월 만에 나온 진기록이다.
 우승 상금 2억6030만3688원을 받은 김한별은 김성현과 이태희를 뛰어넘어 상금랭킹 1위(4억1774만9955원)로 올라섰다. 작년 상금왕 이수민의 4억6994만원에 가까운 액수다.
 헤지스골프 KPGA오픈 우승으로 꺾었던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 자리는 2위와 격차를 더 벌리며 굳게 지켰다. 다음 1위까지 3개 부문 선두에 오른 김한별은 이번 시즌 코리안투어를 평정할 태세다.
 문경준에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한별은 1번 홀(파4) 1m 버디로 가볍게 선두 자리에 올랐고 2번 홀(파5) 문경준의 보기 덕에 단독 선두



로 나섰다.
 6번 홀(파5) 버디로 순항한 김한별은 경기 중반에 이태훈, 왕정훈, 권성열의 거센 추격에 한때 공동선두를 허용했다. 하지만 김한별은 14번 홀에서 1.8m 버디, 15번 홀에서 1m 버디를 내리 뽑아내 선두를 되찾았다. 14~16번 홀 연속 버디로 1타차까지 추격한 이태훈이 18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자 김한별은 2타차 여유를 안고 17, 18번 홀을 파로 막아 역전 우승을 마무리 지었다. /연합뉴스

김광현, 내일은 보나

밀워키전 등판 준비...실트 감독 "볼펜 투구 좋았다" 인터뷰

'K'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15일(이하 한국시간) 복귀전을 치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13일 세인트루이스 지역지 '벨빌 뉴스-데모크랫'의 제프 존스 기자에 따르면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이 순조롭게 15일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트 감독은 이날 취재진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김광현에 대해 "오늘 볼펜 투구가 정말 좋았다"면서 "모든 보고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존스 기자는 "김광현은 월요일(한국시간 15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확실히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날 밀워키와 더블헤더를 치른다.
 1차전에는 대니얼 폰스 데일리인이 선발로 나서고 김광현은 2차전에 등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현은 지난 5일 원정 숙소에서 오른쪽 복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신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신장 경색 진단을 내렸다.
 김광현은 곧 퇴원해 팀 훈련에 합류했고,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이르면 15일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한화·LG 퓨처스리그 선수단 코로나 격리 해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한화와 LG 퓨처스 선수단이 12일 전원 격리에서 해제됐다.
 KBO는 12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한화와 LG의 퓨처스팀 선수 및 코칭스태프, 프런트 전원이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9일을 시작으로 13일 오후 12시 전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인원은 한화 58명(선수 49명, 코칭스태프 7명, 프런트 1명, 지원 스태프 1명), LG 선수 1명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2명 중 1명은 아직 치료 중이다. 다른 선수 1명은 무증상 환자 해제 기준에 따라 12일 퇴원 후 격리해제됐다.
 한편 KBO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 없이 격리 해제된 인원(퇴원 선수 1명, 코치 1명)에 대해서도 구단 차원에서 자체 재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아야 선수단에 합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여울 기자 wool@